

ORIGIN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9;58(3):216-229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수련 실태 설문 조사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¹ 국립춘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²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³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건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⁴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중추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⁵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⁶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⁷

김지훈¹ · 견영기² · 김종우³ · 오홍석⁴ · 이상민³ · 서정석⁵
정성원⁶ · 이강욱^{1,7}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수련위원회

Survey on the Environment and Condition of Korean Psychiatric Residents from 2016 to 2017 Years

Jee Hoon Kim, MD¹, Yeong Gi Kyeon, MD², Jong-Woo Kim, MD³,
Hong Seok Oh, MD⁴, Sang Min Lee, MD, PhD³, Jeong Seok Seo, MD, PhD⁵,
Sung-Won Jung, MD, PhD⁶, KangUk Lee, MD, PhD^{1,7},
and The Committee of Residency Training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¹Department of Psychiat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uncheon, Korea

²Department of Psychiatry, Chuncheon National Hospital, Chuncheon, Korea

³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⁴Department of Psychiatry,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⁵Department of Psychiatry, Konkuk University Chungju Hospital,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Chungju, Korea

⁶Department of Psychiatry,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Daegu, Korea

⁷Department of Psychiat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huncheon, Korea

Objectives The authors evaluated the environment and conditions of Korean psychiatric residents to identify important factors for them in determining their satisfaction with training programs.

Methods Questionnaires on the residency training program were administered to 513 Korean psychiatric residents from 2016 to 2017.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sociodemographic background, work environment and status of the training program. The authors analyzed questionnaire according to the residents' grade and hospital type and identified the significant factors for satisfaction with their training.

Results Compared to the 1st grade, the 4th grade psychiatric residents have significantly less working time, duty days, and more sleep time, mealtime, and annual salary. In the hospital type, the residents of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have more working time, annual salary, and accessibility to educational material than mental hospitals. The satisfaction with their training is higher in the 1st grade than in the 4th grade, in those with more than six hours of sleep time, and in residents who are satisfied with the accessibility of educational materials.

Conclusion Compared to the 1st grade, the working intensity of 4th grade psychiatric residents is lower and their welfare is bett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with the training program,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ncrease the sleep time of residents,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educational material, identify the problem of the training program, particularly in the 4th grade, and make institutional improvem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9;58(3):216-229

KEY WORDS Residency training program · Psychiatric resident · Survey.

Received April 25, 2019

Revised May 9, 2019

Accepted June 12, 2019

Address for correspondence

KangUk Lee,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56 Baengnyeong-ro,
Chuncheon 24289, Korea
Tel +82-33-258-2310
Fax +82-33-258-2146
E-mail kuleemd@kangwon.ac.kr

서 론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

정한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총칭하며,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의사의 약 15%를 차지한다.¹⁾ 이들은 병원에서 수련하고 교

육을 받는 피교육자로서의 신분과,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신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²⁾

전공의 수련은 국가보건의료자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문의료인력 양성에서 핵심적인 과정으로, 이때 전공의는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문화를 습득하고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전공의 시기의 경험은 장기적으로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과 의사-환자 관계 설정, 그리고 전반적인 진료 행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³⁾

하지만 교육과 수련보다는 진료 업무에 치중하여 장시간 근무와 연속 근무 등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에 대해 많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은 의료과오 및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을 높여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⁴⁾ Landrigan 등⁵⁾의 연구에서 전공의들의 장시간 근무와 수면 부족은 심각한 의료사고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Jagsi 등⁶⁾은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는 환자 의료사고를 8배 많이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Kim 등⁷⁾의 연구는 전공의들의 수면박탈이 스트레스, 주의집중,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고, Kang 등⁸⁾에 의해 인턴들의 소진과 인지된 의료사고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과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2014년 4월 정부가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36시간을 초과해 연속 수련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15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서 주당 8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52.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대 연속 수련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76.9%를 차지하는 등 수련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⁴⁾

가정의학과, 외과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왔지만, 정신건강의학과와의 경우 1981년 '신경정신과 수련실태 조사보고' 이후로는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다.^{9,10)} 이에 저자들은 진료 일선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수련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1년차, 4년차 전공의 513명을 대상으로 2016년, 2017년 2년에 걸쳐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는 시행 전에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 후 설문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임상시험의 윤리적 원칙들을 준수하였다.¹¹⁾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징, 근무시간, 당직 식사, 급여 등의 근무환경 현황, 피교육자와 근로자 속성, 학술활동, 교육적 지도 등의 수련과정 현황으로 구성되었다(부록 : 설문지 전문). 회신된 설문지는 연차별, 수련기관 유형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고, 주관적인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 설문항목을 찾아보았다.

통계적 분석은 Windows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한 교차 분석, 대응표본 T 검정, 본페로니 수정법으로 사후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결 과

인구사회학적 특징

총 513명의 전공의 중 남성은 320명으로 62.5%, 여성은 192명으로 37.5%(무응답 1명)였으며 평균 나이는 30.2(± 3.28)세였다. 연차별 분포는 1년차가 256명(49.9%), 4년차가 257명(50.1%)이었다. 수련기관의 유형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이하 정신병원)이 96명(18.8%), 종합병원이 61명(11.9%), 대학병원이 355명(69.3%)이었다(무응답 1명). 수련기관지역은 서울 210명(41.3%), 경기 68명(13.4%), 대구 30명(5.9%), 부산 29명(5.7%), 강원 29명(5.7%), 전북 25명(4.9%), 광주 20명(3.9%), 충남 20명(3.9%), 경남 18명(3.5%), 대전 14명(2.8%), 전남 14명(2.8%), 충북 13명(2.6%), 인천 10명(2.0%), 경북 4명(0.8%), 제주 3명(0.6%), 울산 2명(0.4%)순이었다(무응답 4명).

근무여건 현황

하루 평균 업무시간은 9시간 이하가 35명(6.9%), 9~11시간 188명(37.2%), 11~13시간 185명(36.6%), 13~15시간 57명(11.3%), 15시간 이상이 41명(8.1%)이었다. 연차별로는 4년차에 비해 1년차의 업무시간이 길었고, 수련기관 유형별로는 정신병원에 비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업무시간이 길었으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 전공의의 평균 수면시간은 4~6시간이 237명(46.4%), 6~8시간이 251명(4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차별로는 1년차에 비해 4년차의 수면시간이 길었고 수련기관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일주일 동안의 평균 당직근무횟수는 0회가 155명(30.3%), 1~2회 152명(29.7%), 3~4회 181명

(35.4%), 5~6회 15명(2.9%), 7회 9명(1.8%)이었다. 연차별로는 1년차는 3~4회, 4년차는 0회가 가장 많았고, 1년차의 당직근무횟수가 더 많았다. 수련기관 유형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복리후생

원내에서 보장되는 식사시간은 20분 미만이 22명(4.3%), 20~40분 175명(34.3%), 40~60분 219명(42.9%), 60~90분 85명(16.7%), 90분 이상이 9명(1.8%)이었다. 연차별로는 4년차

가 더 많은 식사시간을 가졌고($p=0.002$), 수련기관 유형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봉은 2000만원 미만이 6명(1.2%), 2000~2500만원 33명(6.5%), 2500~3000만원 87명(17.2%), 3000~3500만원 152명(30.0%), 3500~4000만원 136명(26.9%), 4000~4500만원 55명(10.9%), 4500만원 이상 37명(7.3%)이었다. 연차별로는 4년차가 1년차에 비해, 수련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정신병원에 비해 고연봉자의 비율이 많았다(표 4).

연간 쓸 수 있는 실제휴가는 1~5일이 4명(0.8%), 6~10일

Table 1. Comparison of average working time per day according to grade and hospital type

Working time (hours)	Grade*		Hospital type*		
	1st (n=252)	4th (n=254)	MH (n=95)	GH (n=60)	UH (n=350)
≤9	5 (2.0)	30 (11.8)	14 (14.7)	2 (3.3)	19 (5.4)
9-11	57 (22.6)	131 (51.6)	50 (52.6)	22 (36.7)	116 (33.1)
11-13	102 (40.5)	83 (32.7)	15 (15.8)	29 (48.3)	140 (40.0)
13-15	47 (18.7)	10 (3.9)	8 (8.4)	6 (10.0)	43 (12.3)
>15	41 (16.3)	0 (0.0)	8 (8.4)	1 (1.7)	32 (9.1)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 : $p<0.001$. MH : Mental hospital, GH : General hospital, UH : University hospital

Table 2. Comparison of average sleep time per day according to grade and hospital type

Sleep time (hours)	Grade*		Hospital type		
	1st (n=254)	4th (n=257)	MH (n=95)	GH (n=61)	UH (n=353)
2-4	18 (7.1)	0 (0.0)	4 (4.2)	0 (0.0)	14 (4.0)
4-6	159 (62.6)	78 (30.4)	39 (40.6)	28 (45.9)	169 (47.9)
6-8	74 (29.1)	177 (68.9)	51 (53.1)	33 (54.1)	167 (47.3)
>8	3 (1.2)	2 (0.8)	2 (2.1)	0 (0.0)	3 (0.8)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 : $p<0.001$. MH : Mental hospital, GH : General hospital, UH : University hospital

Table 3. Comparison of average duty days per week according to grade and hospital type

Duty days	Grade*		Hospital type		
	1st (n=252)	4th (n=257)	MH (n=96)	GH (n=61)	UH (n=354)
0	1 (0.4)	154 (59.9)	26 (27.1)	19 (31.1)	109 (30.8)
1-2	62 (24.3)	90 (35.0)	32 (33.3)	24 (39.3)	96 (27.1)
3-4	171 (67.1)	10 (3.9)	31 (32.3)	17 (27.9)	133 (37.6)
5-6	12 (4.7)	3 (1.2)	3 (3.1)	1 (1.6)	11 (3.1)
7	9 (3.5)	0 (0.0)	4 (4.2)	0 (0.0)	5 (1.4)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 : $p<0.001$. MH : Mental hospital, GH : General hospital, UH : University hospital

Table 4. Comparison of annual salary according to grade and hospital type

Annual salary (million won)	Grade*		Hospital type*		
	1st (n=252)	4th (n=254)	MH (n=96)	GH (n=61)	UH (n=348)
<20	5 (2.0)	1 (0.4)	0 (0.0)	0 (0.0)	6 (1.7)
20-25	29 (11.5)	4 (1.6)	15 (15.6)	4 (6.6)	14 (4.0)
25-30	49 (19.4)	38 (15.0)	36 (37.5)	9 (14.8)	42 (12.1)
30-35	76 (30.2)	76 (29.9)	29 (30.2)	20 (32.8)	103 (29.6)
35-40	62 (24.6)	74 (29.1)	13 (13.5)	20 (32.8)	103 (29.6)
40-45	22 (8.7)	33 (13.0)	3 (3.1)	4 (6.6)	47 (13.5)
>45	9 (3.6)	28 (11.0)	0 (0.0)	4 (6.6)	33 (9.5)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 : $p<0.001$. MH : Mental hospital, GH : General hospital, UH : University hospital

139명(27.3%), 11~15일 363명(71.3%), 16일 이상 3명(0.6%)이었다. 연차별, 수련기관 유형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피교육자와 근로자 속성

전공의의 피교육생과 근로자로서의 이중적 신분에 대한 설문에서는 중립적인 태도(“피교육생이자 근로자이다.”)가 349명(6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근로자에 가깝다.”는 대답이 115명(22.6%), “피교육생에 가깝다.” 23명(4.5%), “근로자이다.” 15명(3.0%), “피교육생이다.” 6명(1.2%) 순으로 자신을 근로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전공의가 피교육생이라고 생각하는 전공의에 비해 많았다. 연차별로는 4년차 전공의가 1년차에 비해 자신을 근로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수련기관 유형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수련과정 현황

수련병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이 28명(5.6%), 대체로 만족 269명(53.4%), 보통 137명(27.2%), 대체로 불만족 67명(13.3%), 매우 불만족 3명(0.6%)으로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 항목은 연차, 평균 수면시간, 교육자료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였다. 연차별로는 4년차에 비해 1년차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평균 수면시간에서는 6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가지는 전공의의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자료의 접근성에 대해 만족하는 군이 중립적인 군, 불만족하는 군에 비교해 교육과정에도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 외의 수련기관 유형, 평균 업무시간, 연봉은 교육과정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표 6).

교육 주체는 해당 분과의 지도전문의가 75.1%로 대부분이었고, 고년차 전공의 21.1%, 전임의 3.8%순이었다. 교육자료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67명(13.1%), 대체로 만족 256명(50.2%), 보통 115명(22.5%), 대체로 불만족 60명(11.8%), 매우 불만족 12명(2.4%)이었다. 교육자료의 접근

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연차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수련기관 유형별로는 정신병원에 비해 대학병원의 만족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7). 학술활동에 해당하는 시간은 평균 주당 7.96(± 5.56)시간, 지도전문의에 의한 교육적 지도 시간은 평균 주당 2.45(± 2.21)시간이었으며 연차별, 수련기관 유형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인이 적절한 교육적 지도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64명의 응답자는 그 이유로, “근무에 해당하는 업무량이 과다함” 24명(37.5%), “교육에 해당하는 활동이 명확하지 않음” 21명(32.8%), “교육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19명(29.7%)으로 응답했다.

고 찰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수련 실태를 파악한 후, 연차별, 수련기관 유형별에 따라 분석하였고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준 항목을 찾아보았다. 본 연구를 ‘2015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남성이 62.5%, 여성이 37.5%로 전체 전공의(남성 70.7%, 여성 29.3%)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평균 나이가 30.2세로, 30~34세가 절반 이상을 보인 ‘2015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연구 모두 수련병원 지역은 서울/경기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수련기관의 형태는 두 연구 모두 대학병원이 가장 많았으나, 정신건강의학과와 비교한 경우, 정신병원의 비율이 18.8%로 ‘2015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서 단과전문병원이 차지하는 비율(1.0%)에 비해 많았다.⁴⁾

평균 근무시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업무시간을 측정해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측정한 ‘2015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비교는 할 수 없었다. 당일일수를 비교해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2015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비슷한 수준의 주당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고, 두 연구 모두 1년차 전공의가 4년차 전공의에 비

Table 5. Comparison of subjective identity of dual status as trainee and employee by grade and hospital

Subjective identity	Grade*		Hospital type		
	1st (n=256)	4th (n=252)	MH (n=95)	GH (n=60)	UH (n=352)
T	2 (0.8)	4 (1.6)	2 (2.1)	1 (1.7)	3 (0.9)
CT	14 (5.5)	9 (3.6)	5 (5.3)	0 (0.0)	18 (5.1)
TE	188 (73.4)	161 (63.9)	73 (76.8)	43 (71.7)	233 (66.2)
CE	43 (16.8)	72 (28.6)	12 (12.6)	14 (23.3)	88 (25.0)
E	9 (3.5)	6 (2.4)	3 (3.2)	2 (3.3)	10 (2.8)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 : $p < 0.05$. MH : Mental hospital, GH : General hospital, UH : University hospital, T : Be trainees, CT : Be close to trainees, TE : Be trainees and employees both, CE : Be close to employees, E : Be employees

Table 6.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training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VS	S	N	D	VD
Grade*					
1st (n=251)	18 (7.2)	147 (58.6)	59 (23.5)	26 (10.4)	1 (0.4)
4th (n=253)	10 (4.0)	122 (48.2)	78 (30.8)	41 (16.2)	2 (0.8)
Hospital type					
MH (n=95)	6 (6.3)	51 (53.7)	27 (28.4)	11 (11.6)	0 (0.0)
GH (n=60)	2 (3.3)	30 (50.0)	14 (23.3)	13 (21.7)	1 (1.7)
UH (n=348)	20 (5.7)	188 (54.0)	96 (27.6)	42 (12.1)	2 (0.6)
Average sleep time† (hours)					
≤6 (n=249)	8 (3.2)	134 (53.8)	64 (25.7)	40 (16.1)	3 (1.2)
>6 (n=253)	20 (7.9)	133 (52.6)	73 (28.9)	27 (10.7)	0 (0.0)
Accessibility to educational materials‡					
S (n=316)	28 (8.9)	205 (64.9)	54 (17.1)	26 (8.2)	3 (0.9)
N (n=115)	0 (0.0)	39 (33.9)	56 (48.7)	20 (17.4)	0 (0.0)
D (n=71)	0 (0.0)	25 (35.2)	25 (35.2)	21 (29.6)	0 (0.0)
Working time per day (hours)					
≤11 (n=222)	16 (7.2)	116 (52.3)	59 (26.6)	29 (13.1)	2 (0.9)
11–13 (n=181)	9 (5.0)	102 (56.4)	49 (27.1)	20 (11.0)	1 (0.6)
>13 (n=95)	3 (3.2)	47 (49.5)	29 (30.5)	16 (16.8)	0 (0.0)
Annual salary (million won)					8 (6.3)
<30 (n=126)	8 (6.3)	69 (54.8)	30 (23.8)	18 (14.3)	1 (0.8)
30–40 (n=282)	11 (3.9)	146 (51.8)	85 (30.1)	38 (13.5)	2 (0.7)
>40 (n=90)	9 (10.0)	49 (54.4)	21 (23.3)	11 (12.2)	0 (0.0)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 : $p<0.05$, † : $p<0.01$, ‡ : $p<0.001$. MH : Mental hospital, GH : General hospital, UH : University hospital, VS : Very satisfied, S : Satisfied, N : Neutral, D : Dissatisfied, VD : Very dissatisfied

Table 7. Accessibility to educational material by grade and hospital type

Satisfaction	Grade		Hospital type*		
	1st (n=253)	4th (n=257)	MH (n=96)	GH (n=61)	UH (n=352)
VS	29 (11.5)	38 (14.8)	7 (7.3)	9 (14.8)	51 (14.5)
S	132 (52.2)	124 (48.2)	37 (38.5)	29 (47.5)	190 (54.0)
N	59 (23.3)	56 (21.8)	24 (25.0)	15 (24.6)	76 (21.6)
D	28 (11.1)	32 (12.5)	20 (20.8)	8 (13.1)	31 (8.8)
VD	5 (2.0)	7 (2.7)	8 (8.3)	0 (0.0)	4 (1.1)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 : $p<0.001$. MH : Mental hospital, GH : General hospital, UH : University hospital, VS : Very satisfied, S : Satisfied, N : Neutral, D : Dissatisfied, VD : Very dissatisfied

해 당직일수가 많았다.⁴⁾

분석결과 연차별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 항목은 하루 평균 업무시간, 평균 수면시간, 당직근무 횟수, 원내에서 보장되는 식사시간, 연봉, 피교육자와 근로자 속성,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이 있었다.

1년차에 비해 4년차 응답자에서 업무시간과 당직근무 횟수는 감소하며, 수면시간과 식사시간, 연봉은 증가하였다. 이는 연차가 올라갈수록 업무부담은 감소하며 복리후생은 양호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피교육자와 근로자 속성에 대한 질문에서 “근로자에 가깝다.”라는 답변이 1년차 응답자에서는 43명(16.8%)인데 비해, 4년차 응답자에서는 72명(28.6%)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역시 4년차에서

만족도가 떨어졌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들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본인이 피교육자라기보다는 근로자로서 병원에서 일하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복무강도와 복리후생이 양호해짐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자신을 피교육자보다는 근로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수련기관에서 고년차 전공의에게 적절한 수련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련기관 유형별로는 하루 평균 업무시간, 연봉, 교육자료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정신병원에 비해 업무시간과 연봉은 많았으며,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성 역시 높았다. 상급병원일

결론

수련 만성 환자에 비해 급성기 환자의 비율이 높고, 응급실 업무 및 타과 협진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상급병원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상급병원일수록 연봉이 높았으며, 교육자료에 대한 지원도 많아 상대적으로 정신병원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 항목은 연차, 평균 수면시간, 교육자료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였다. 1년차에 비해 4년차 전공의에서 교육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년차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면박탈은 전공의의 스트레스, 주의집중,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고,⁷⁾ 이를 통해 교육 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주의집중실패를 줄여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전공의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교육자료의 접근성은 병원 내의 의학도서관의 규모, 위치, 다양한 학술지에 대한 접근성 등을 말하며, 이는 교육과 관련된 병원 내의 시스템이 전공의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지도의 부적합성의 이유에 대해 “근무에 해당하는 업무량이 과다함”, “교육에 해당하는 활동이 명확하지 않음”, “교육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의 3가지로 나누어 질문하였으나 연차별, 수련기관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공의 교육과 관련된 앞선 연구들에서 전공의 교육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알려져 있다. Chung 등²⁾은 전공의의 직무만족도에 멘토링 여부가, Kang 등¹²⁾은 전문직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과 수련과정에 대한 전공의 만족감에 대한 Elliott 등¹³⁾과 Ellencweig 등¹⁴⁾의 연구에서 전공의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항목은 지도감독의 질, 전공의에 대한 지도전문의의 존중, 내부 분위기 등이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설문조사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이후인 2016년, 2017년 이루어져 전공의들이 이를 의식하고, 긍정적인 응답 쪽으로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연구에 2, 3년차 전공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1년차에서 4년차 전공의로 갈수록 전공의 수련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는 앞선 연구들에서 수련과정에 대한 전공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 지도감독의 질, 지도전문의의 존중, 내부 분위기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들은 연차가 올라가며 업무강도는 감소하고 복리후생은 양호해졌다. 하지만 오히려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은 수면시간과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 역시 낮은 교육 만족도와 연관이 있었다. 수련 역량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시간과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고년차 전공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그를 통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의 일선에서 진료하게 될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대한 본 연구는 향후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들의 수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중심 단어 : 전공의 수련제도 ·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 설문.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4 Annual report on membership statistics Korean Medical Association. Seoul: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5.
- 2) Chung EK, Han ER, Woo YJ. Medical residents' job satisfaction and their related factors. *Korean J Med Educ* 2013;25:39-46.
- 3) Kim SR, Kim SS, Kim JY. Working condition, health and perceived patient safety among doctors in training: 2014 Korean interns & residents survey. *Health Soc Welf Rev* 2015;35:584-607.
- 4) Oh SH, Kim JS, Lee PS. A survey on training and working conditions of residents in 2015. *J Korean Med Assoc* 2015;58:1179-1189.
- 5) Landrigan CP, Rothschild JM, Cronin JW, Kaushal R, Burdick E, Katz JT, et al. Effect of reducing interns' work hours on serious medical errors in intensive care units. *N Engl J Med* 2004;351:1838-1848.
- 6) Jaggi R, Kitch BT, Weinstein DF, Campbell EG, Hutter M, Weissman JS. Residents report on adverse events and their causes. *Arch Intern Med* 2005;165:2607-2613.
- 7) Kim HJ, Kim JH, Park KD, Choi KG, Lee HW. A survey of sleep deprivation patterns and their effects on cognitive functions of residents and interns in Korea. *Sleep Med* 2011;12:390-396.
- 8) Kang EK, Lihm HS, Kong EH. Association of intern and resident burnout with self-reported medical errors. *Korean J Fam Med* 2013;34:36-42.
- 9) Lee SH, Paek YJ, Kim SY, Oh SW, Shim JY, Lee JK. Research and scholarly activity of residency programs of family medicine in Korea. *J Korean Acad Fam Med* 2004;25:826-834.
- 10) Yoo MW, Lee IK, Ahn HS, Kim JW, Lee HJ, Lee KU, et al. Survey of the residency training program in surgery. *J Korean Surg Soc* 2008;74:1-9.
- 11) World Medical Association. World Medical Association Declaration of Helsinki: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update 2018 Jul 9; cited 2019 Apr 1]. Available from: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ples-for-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
- 12) Kang YS, Kam S, Yeh MH. Interns' resident's professional job per-

- ception and its effect to their job satisfaction. Korean J Prev Med 1997;30:209-228.
- 13) Elliott RL, Yudkowsky R, Vogel RL. Quality in psychiatric training: development of a resid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 Acad Psychiatry 2000;24:41-46.
- 14) Ellenweig N, Weizman A, Fischel T. Factors determining satisfaction in psychiatry training in Israel. Acad Psychiatry 2009;33:169-173.

■ 부 록 ■

2017년 신입회원 심포지엄 설문지

1. 성별 : ☐ 남자 / ☐ 여자

2. 연령 : 만 _____ 세

3. 종 교 : ☐ 개신교 / ☐ 천주교 / ☐ 불교 / ☐ 유교 / ☐ 기타 / ☐ 무교

4. 수련기관 종류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국립)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사립)
☐ 종합병원(폐쇄병동 유) ☐ 종합병원(폐쇄병동 무)
☐ 대학병원(폐쇄병동 유) ☐ 대학병원(폐쇄병동 무)

5. 수련기관 지역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강의 만족도]

강의 만족도를 각 평가 항목별로 1~9점 사이의 점수를 선택해 기입주세요.

(1 매우 그렇지 않다) ◀────────────────────────────────────────▶ (9 매우 그렇다)

강 의 제 목	유익하고 중요내용	이해쉽고 수준적합	재미유발 집중유지	후배에게 추천한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개				
● 전공의 수련규정 소개				
● 정신과 진료의 특수한 법적 문제				
● 정신건강의학의 미래				
● 의료와 법적 책임				
● 저렴하게 SCI 논문 쓰는 법				

설문 조사 동의서

본 수련실태조사는 각 의료기관 별로 시행하고 있는 수련 과정의 교육 및 근무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전공의 수련 과정을 보다 개선시키기 위해 어떠한 사안이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본 실태조사는 이러한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나는 수련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함을 약속 받았습니다.

☐ 예 / ☐ 아니오

□ 나는 본 조사에 대해 언제라도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참여를 중도에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 예 / ☐ 아니오

□ 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 ☐ 아니오

일 시 : 2017년 4월 12일

참여자 : (서명/인)

〈A. 근무환경 현황〉

근무시간, 당직 등에 관하여

1. 귀하의 출근 시간(병원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은 보통 몇 시 입니까?

1) 6시 이전 2) 6시~7시 3) 7시~8시 4) 8시~9시 5) 9시 이후

2. 귀하의 퇴근 시간(업무를 종료하고 숙소 또는 귀가 하는 시간)은 보통 몇 시 입니까?

1) 19시 이전 2) 19시~21시 3) 21시~23시 4) 23시~24시 5) 24시 이후

3. 귀하는 보통 하루 몇 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9시간 이하 2) 9시~11시간 3) 11~13시간 4) 13~15시간 5) 15시간 이상

4. 현재 귀하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다음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루 2시간 미만 2) 하루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3) 하루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4) 하루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5) 하루 8시간 이상

5. 1개월 근무 시 휴일(off)는 몇 번이나 부여 받으십니까?

1) 1회 2) 2회 3) 3회 4) 4회 5) 5회 이상

6. 당직 근무(24시간 근무 or 야간근무)를 주 몇 회나 하십니까?

1) 없다 2) 1~2회 3) 3~4회 4) 5~6회 5) 7회 이상

7. 당직 근무 종료 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얼마나 보장되십니까?

- 1) 18시간 이상 2) 18~12시간 3) 12~6시간 4) 6시간 미만 5) 없다.

8. 퇴근 후 긴급한 환자 발생 등으로 다시 병원에 나오는 횟수(On-call)가 주당 몇 회 정도나 되십니까?

- 1) 없다 2) 1회 3) 2회 4) 3회 5) 4회 이상

9. 본인의 업무 중 진료업무 및 연구 업무 이외의 잡무(예) 사적인 심부름, 전공의 고유의 업무 이외의 일) 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 1) 전혀 없다 2) 5~10% 3) 10~15% 4) 15~20% 5) 20% 이상

식사, 급여, 휴가 복리후생에 대하여

10. 보통 병원에서 식사를 몇 끼나 하십니까?

- 1) 먹지 않는다. 2) 한 끼 3) 두 끼 4) 세 끼 5) 네 끼 이상(야식 포함)

11. 한 끼 식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식사시간 + 휴게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1) 20분 미만 2) 20~40분 3) 40분~60분 4) 60분~90분 5) 90분 이상

12. 귀하의 연봉은 얼마 입니까(급여명세서 기준, 정근수당, 명절수당 등과 같은 고정적 수당은 포함, 당직비 등의 부가적 금품 제외)?

- 1) 2000 만원 미만 2) 2000~2500 만원 미만 3) 2500~3000만원 미만
4) 3000~3500만원 미만 5) 3500~4000만원 미만 6) 4000~4500만원 미만 7) 4500만원 이상

13. 귀하의 당직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일단위로 환산하여 작성)?

- 1) 없다 2) 2만원 이하 3) 2만원 이상~3만원 미만
4) 3만원 이상~4만원 미만 5) 4만원 이상~5만원 미만 6) 5만원 이상

14. 귀하의 소속병원에서 연간 실제 휴가는 몇 일 입니까?

- 1) 별도로 없음 2) 1~5일 미만 3) 6~10일 4) 11~15일 5) 16일 이상

15. 귀하는 실제로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1) 없다. 2) 있다.

16. 위 16번 문항에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17. 귀하의 소속병원의 출산을 앞둔 전공의는 출산전후휴가를 실질적으로 며칠이나 사용 할 수 있습니까?

- 1) 30일 미만 2) 30일~50일 미만 3) 50일~70일 미만 4) 70일~90일 미만 5) 90일 이상

18. 위 17번 문항에서 법정 출산전후휴가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9. 배우자가 출산을 한 전공의는 연차휴가 등의 기존 휴가와 별도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까?

- 1) 사용할 수 없다 2) 1일 3) 2일 4) 3일 5) 4일 이상

20.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후생복지환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목별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0-1.	근로시간(일평균)의 적절성	○	○	○	○	○	○	○	○	○	○
20-2.	휴가(연가, 평가, 출산휴가 포함) 사용의 자율성	○	○	○	○	○	○	○	○	○	○
20-3.	급여 지급 수준	○	○	○	○	○	○	○	○	○	○
20-4.	당직수당 등 인센티브 지급 수준	○	○	○	○	○	○	○	○	○	○
20-5.	타직원과의 처우에 대한 평등성	○	○	○	○	○	○	○	○	○	○
20-6.	깨끗하고 첨단화된 근로 환경 및 시설	○	○	○	○	○	○	○	○	○	○
20-7.	의료인 간 업무의 뚜렷한 분배	○	○	○	○	○	○	○	○	○	○
20-8.	보건 및 병원서비스 혜택	○	○	○	○	○	○	○	○	○	○
20-9.	병원 직원 식당 청결도 및 맛	○	○	○	○	○	○	○	○	○	○
20-10.	당직실 환경 및 청소 / 세탁	○	○	○	○	○	○	○	○	○	○
20-11.	병원 내 주차시설 이용	○	○	○	○	○	○	○	○	○	○
20-12.	병원에서 전공의 복지에 대해 많이 배려한다.	○	○	○	○	○	○	○	○	○	○

피교육자와 근무자 속성 일반에 대하여

21.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수련을 받는 의사를 전공의라고 합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피교육자이면서 병원에서 환자진료를 위해 근무하는 근무자로서의 이중적 신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귀하는 전공의로서 피교육자이면서 근무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피교육생이다. 2) 피교육생에 가깝다.
3) 피교육생이자 근무자이다. 4) 근무자에 가깝다. 5) 근무자이다.

22. 전공의의 교육과 근무는?

		◀ 근무 ▶										교육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2-1.	현 시점에서 전공의의 근무(service)와 교육(education)의 비율은?	○	○	○	○	○	○	○	○	○	○	○	○
2-2.	적정한 전공의의 근무와 교육의 비율은?	○	○	○	○	○	○	○	○	○	○	○	○

〈B. 수련과정 현황〉

23. 귀하는 현재 속한 수련병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24. 귀하가 속한 현재 수련환경에서 학술활동에 해당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할당되어 있습니까?
평균 주당 _____ 시간
25. 귀하가 속한 수련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적 지도 (Educational supervision)를 받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 26-1. 만약 25번 문항에서 1)로 답변한 경우, 교육적 지도의 주된 교육은 누구입니까?
1) 해당 분과의 지도전문의 2) 해당 분과의 전임의 3) 해당분과의 고연차 전공의
- 26-2. 귀하가 속한 수련환경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개별적인 교육적 지도 (Educational supervision)나 면담의 기회는 주당 몇시간 정도입니까? (_____ 시간)
27. 만약 25번 문항에서 2)로 답변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교육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2) 교육에 해당하는 활동이 명확하지 않음
3) 근무에 해당하는 업무량이 과다함
28. 귀하가 속한 수련환경에서 교육자료(학술논문, 인터넷 자료 등)에 대한 접근도를 평가해주시시오.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29. 귀하가 속한 수련 체계에서 타 분과 및 타 수련병원과의 파견 수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0. 29번 문항에서 1)로 답변한 경우 이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주시시오.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31. 전공의 수련과정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 다음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현재 귀하가 속한 수련환경을 통해,		◀ 그렇다		그렇지 않다. ▶		
		①	②	③	④	⑤
31-1.	분과의 수련 교육목표에 대해서 알고 있다.	○	○	○	○	○
31-2.	수련 결과 실제적 교육목표를 달성한다.	○	○	○	○	○
31-3.	전문적 의학 술기 능력이 향상된다.	○	○	○	○	○
31-4.	전문적 의학지식이 함양된다.	○	○	○	○	○
31-5.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다.	○	○	○	○	○
31-6.	연차별 수련과정의 구분이 확실하다.	○	○	○	○	○

현재 귀하가 속한 수련환경을 통해,		◀ 그렇다		그렇지 않다. ▶		
		①	②	③	④	⑤
31-7.	연차별 수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	○	○	○
31-8.	현재 수련과정 후 결과적으로 환자진료 능력이 향상된다.	○	○	○	○	○
31-9.	현재 전공의 수련이 수련 직후 봉직을 하거나 개원하는데 충분하다.	○	○	○	○	○
31-10.	현 수련내용이 충분치 못하여 전임의 과정을 해야만 한다.	○	○	○	○	○

32. 전공의 수련과정의 양적 측면에 대해서 다음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현재 귀하가 속한 수련환경에서,		◀ 그렇다		그렇지 않다. ▶		
		①	②	③	④	⑤
32-1.	수련의 양이 저년차에 집중되어 있다.	○	○	○	○	○
32-2.	수련의 양이 연차별로 고르게 분포해야 한다.	○	○	○	○	○
32-3.	집담회 등 학술활동이 수련과정에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다.	○	○	○	○	○
32-4.	병동, 외래, 응급실, 파견 등의 수련 과정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	○	○	○
32-5.	지도전문의에 의한 교육이 수련과정에 충분한 부분을 포함한다.	○	○	○	○	○

33. 아래의 정신의학 분야 중 향후 세부 전공 (펠로우십)의 주제로 관심이 가는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정신병적 장애
정동 장애 (양극성장애,우울장애) 및 불안장애
중독 정신의학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
수면장애,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노인 정신의학
자문조정 정신의학
지역사회 정신의학
정신분석치료
인지행동치료 및 기타 정신심리사회치료.

()

34. 전공의 수련 이후 진로 계획에 대해 다음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원 2) 의과대학교수 (종합병원 staff) 3) 봉직의 4) 연구기관
5) 공무원 (복지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 6) 제약회사 등 의료관련 업계
7) 기타 ()

정신건강의학과 인턴 현황?

35. 귀하가 속한 수련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배정되는 인턴은 몇 명입니까?

- 1) 2명 2) 1명 3) 0.5명 4) 없음 5) 해당사항 없음(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

36. 귀하가 속한 수련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배정된 인턴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자체의 인턴 교육 지침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1) 있음 2) 없음 3) 해당사항 없음